

냉전 이데올로기 갈등의 추상화와 월경의 불/가능성

-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2003)을 중심으로

안수민 (연세대학교)

## 1. 들어가며

2000년대 이후로 본격화된 민간·국가적 차원에서의 진상규명 작업이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작업들로도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한 사건의 그늘들이 있다.<sup>1</sup> 그 그늘을 뒤집어보기 위해서는 탈냉전기 이후 곧잘 언급되었던 ‘낡은 이념’이라는 단어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단어 속에는 냉전 시기의 극렬했던 이념 대립이 20세기 말 서독의 흡수통일과 소련의 해체 등을 통해 탈냉전기로 이행해온 오늘날에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유물이라는 진단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념의 대립, 그것을 둘러싼 적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해체, 폐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제주4.3사건은 해방 직후의 한반도를 빠르게 양분하고 있던 냉전이 만들어낸 첫 열전이었다. ‘폭압적인 국가폭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의 희생’이라는 해석은 당대의 무수한 적대들과 비인간적인 학살들을 충분히 해명하고 포괄할 수 있는가. 이 해석이 불가피하게 만들어내는 또 다른 4.3사건의 타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뒷받침했던 낡고 허구적인 이념이 여전히 이데올로기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2003)의 제주4.3사건 재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냉전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한 미학적 방식에 대해 논구해보고자 한다.

## 2. 제주도 및 제주도 민중의 신화화

---

<sup>1</sup> 허영선 외, 『그늘 속의 4.3: 死·삶의 기억』, 선인, 2009.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은 제주도에서 유래한 신화 또는 설화, 그리고 무속을 주요 소재로 차용하고 있다. 서사적 배경은 1980년대 제주도이며,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설정으로 ‘역사 씻기기 사업’이라는 것이 등장한다. 이는 민속문화의 위상을 전통문화로 격상시키고 제도화했던 전두환 정권의 문화정책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근대 이전에는 사대부 문화에 의해 배제되었고, 식민지기에는 샤머니즘으로 천시받았으며,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정책 하에서도 역시 전근대적이고 타파해야 할 미신으로 부정되어왔던 무속은 1980년대에는 되살려야 할 ‘민족문화’, 계승·보존해야 할 ‘전통문화’가 되었다.<sup>2</sup> ‘역사 씻기기 사업’이라는 이 허구적인 설정은 식민지기 이전부터 해방 이후까지의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희생된 넋들을 곳으로 위무함으로써, 군부정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민족’이라는 당대의 주인기표를 정부 차원에서 전유하려는 기획이 엿보이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주관하며 군부정권과도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는 듯 보이는 ‘큰집’이라는 기관에서 육지의 무당들에게 제주도, 특히 4.3사건에 희생된 넋의 진혼 곳을 하도록 권함에 따라, 육지의 무당들이 제주도로 가게 된다. 작품의 초점은 육지에서 온 무당들이 제주도에 와서 씻길 넋을 찾는 지난한 과정과 그들의 고향에 대한 상세한 묘사이다. 제주도 심방이나 육지 무당이 고향에서 읊는 무가(巫歌)로 소천국 백주또 설화, 바리데기 설화 등이 언급된다. 또한 재일조선인 2세 출신의 민속학도가 등장하는데, 그는 어느 누구보다 한국, 특히 제주도의 설화와 곳을 열성적으로 연구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의 아버지가 제주4.3사건의 생존자라는 점에서, 그는 제주도에서, 그리고 이 서사 속에서 외부인과 내부인의 경계의 위치를 점한다. 작품은 이 인물을 통해

<sup>2</sup> 이하나, 「1970~1980년대 ‘민족문화’ 개념의 분화와 쟁투」, 『개념과 소통』 vol.18., 2016. 179쪽. 한편 1970~80년대 무속/무당의 위상에 관해서는 식민지기에 출생하여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만신 김금화의 일대기를 다룬 박찬경 감독의 영화 <만신>(2014)이나 그녀의 자서전 등을 참고해 볼 수도 있다. 김금화는 한국전쟁 전후로는 무당이 ‘빨갱이’ 취급을 받기도 하고, 1960~70년대에는 타파해야 할 전근대적인 미신으로 인식되다, 1980년대가 되자 관제행사인 국풍81 등의 영향으로, 자신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곳을 촬영하는 등 당시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고 증언한다.

곳의 의례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며, 제주도의 설화 역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한다. 작품에 배치된 설화, 신화들은 고종민의 해석을 경유하여 제주도민들의 공통의 심성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물이 된다. 특히 고종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영웅 설화(김통정 설화와 김방경 설화<sup>3</sup>)를 통해 외부인 또는 권력층에 대한 제주도민들이 공유하는 일종의 집단적인 심성을 도출해내는 부분은 주목해볼 만하다.

요컨대, 김통정과 김방경의 대립 갈등상 속에 투영된 이 섬사람들의 의식은 표면적으로는 두 경향이 이분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두 인물을 모두 부인하는 전면적 부정의 정서가 깔려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표면에선 청죽회와 한얼회 두 단체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의 정서적 편향을 대표하고 있는 듯 보이면서도 정작에 이들이 주도해 추진하려는 ‘역사 씻기기’ 사업의 위령극에는 아무도 동조하려는 기미가 없는 데에서 그 진면목을 읽을 수 있었다. 이를테면 청죽회와 한얼회 일 역시도 섬사람들은 이 섬과는 상관없는 육지부 세력과 그를 대신하고 나선 일부 섬 유력자들의 제 편 힘불리기 놀음쯤으로 아예 상관을 하려 들지 않고 있는 분위기가 같았다.

중민은 지금까지 그 섬사람들의 외면과 깊은 침묵을 그렇게 읽고 그쯤 이해해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육지부 사람들에 의한 가혹한 편가르기 속에 끝없이 되풀이되어 온 섬의 비극을 나름대로 이해하며 치를 떨어온 것이었다.<sup>4</sup> (강조는 인용자)

작품은 4.3사건 희생자의 진혼 및 기념 사업과 관련하여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

<sup>3</sup> 두 인물은 모두 실존했던 인물로 고려 초 삼별초의 우두머리였던 김통정이 제주도로 들어와 항쟁을 이어갔고, 이를 진압한 인물이 김방경이라고 한다. 책에서는 두 인물의 설화를 상세히 소개, 논의하고 있다.

<sup>4</sup> 이창준, 『신화를 삼킨 섬 1』, 열림원, 197~198쪽.

두 개의 세력을 형상화한다. 4.3사건의 ‘좌익측 희생자’의 유해 수습과 그 녀의 원한을 씻기는 작업을 담당하는 청죽회와 ‘우익측 희생자’ 측인 한얼회가 자기 편의 희생자 수 불리기 및 4.3사건의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인정 투쟁에만 몰두하는 일종의 권력 집단으로 그려진다. 한편 사망 내력이나 연고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좌익과 우익 어느 측의 희생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무주고혼’과 그의 유가족, 그들만을 기리는 제주도 토박이 심방들이 권력 집단들과의 대척점에서 제주도 민중의 형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와 같은 인물 및 집단의 배치는 제주도라는 지정학적 장소와 그 역사에 대한 대표/재현(representation)의 문제를 전면화한다. 요컨대 제주도 혹은 구체적으로 제주4.3사건의 비극적인 희생을 대표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제주도민의 ‘보편적인 심성 구조’를 대변할 수 있는가? 전술한 질문들이 고종민의 분석의 기저를 이루는 듯 보인다. 청죽회나 한얼회 등의 가시적이고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되는 이념·정치세력은 표면상으로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나 실상 제주도민들은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다. 고종민의 해석을 따르면 제주도민들은 “외면”과 “깊은 침묵”으로 그들의 대표성을 부정한다. 그리고 그들 대신 일반 민중이 대표성을 체현할 수 있게 되는 근거는 고종민이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소개하고 설명하며 주해를 다는 제주도의 신화와 설화에 의해 보충된다. 신화와 설화는 그 대표성에 상응하는 재현물을 일반 민중에게 제공한다. 그 결과 제주도 민중은 작품에서 육지에서 뿔박받고 끝내 죽임을 당하거나(아기장수 설화)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녀야 하는(소천국 설화) 비극적인 설화 속의 비범한 영웅과 동일한 형상으로 격상된다.

이러한 재현을 통해 제주도, 제주도민들, 그리고 제주4.3사건은 제목 그대로 신화화되는 듯 보인다. 신화와 설화를 매개로 하는 재현을 통해 제주도와 제주4.3사건을 둘러싼

시간/공간/인물들은 신성한 영역에 박제된다. 작품에서 지식인이나 권력자 혹은 권력 집단이 1980년대 제주도라는 시공간에서 제주4.3사건의 기억과 그 해원을 둘러싼 갈등을 횡단하는 행위자로 기능하는 동안, 무력하며 이유없이 핍박받는 민중들은 그들의 의사를 말이나 행위로 외화하지 않는다. 그들의 ‘무위(無爲)’가 곧 그들의 의사로 간주되며 적극적으로 해석된다. 물론 상황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자신을 둘러싼 제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결단을 포괄하는 능동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재현의 책임과 윤리를 방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제주도 민중은 좌익과 우익,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으며, 현실의 이념 및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무결하고 무력한 이들로 그려진다. 오랜 기간동안 한 공간에서 전승되어온 설화/신화는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별 사람들을 복합적인 분석이나 매개 없이 곧바로 단일한 집단으로 범주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피해자 서사는 무결하고 무력한 피해자의 형상을 획일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이 형상에 들어맞지 않는 다양한 피해의 양상을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며, 피해자의 행위성을 협소하게 이해하도록 유도할 위험이 있다. 이로써 피해(자)들 간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소거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작품의 재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작품에서 특히 주목하거나 부각시키고 있는 피해자의 형상이 좌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으며 동시에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권력 집단과 뚜렷이 구분되며,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순수한’ 형상이라는 점이다. 4.3사건을 견인한 주요한 축 중 하나가 냉전 이데올로기임을 고려할 때, 이는 이데올로기 갈등에 대한 이해 및 재현의 책임과 관련하여 재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청준의 작품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체험으로 회자되며 그의 많은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모티브는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기인한 폭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깃불에 대한 공포’이다. 이를 겹쳐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냉전과 이데올로기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제주도과 제주4.3사건을 형상화하고 있는 이 작품의 평평한 재현은 그의 다른 작품들과 관련지어 정치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sup>5</sup> 다음 절에서는 이청준의 글쓰기와 전깃불 모티브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신화를 삼킨 섬』의 재현이 은폐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 논의해보려 한다.

### 3. 전깃불 체험의 추상적인 전유, 은폐되는 심문의 정치의 기억

이청준의 많은 작품에 전깃불 모티브가 등장하지만, 그중 이청준의 글쓰기와 세계인식, 전깃불 모티브 사이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논구되는 작품은 주지하다시피 「소문의 벽」(1971)이다. 작품의 화자이자 잡지 편집자인 ‘나’는 우연히 거리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만나 집에 데리고 오게 되는데, 곧 이 사람이 작가 박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정신병원 의사는 스스로 말을 하게끔 집요하게 추궁하는 방식으로 그를 치료하려는 반면, ‘나’는 그가 소설가인 만큼 소설에서 그의 병의 원인을 간접적으로 추적한다. 정신병원 의사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한편, ‘나’는 박준이 나온 인터뷰 기사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소설을 통해, 그를 광인으로 만든 것은 궁극적으로 작가가 필연적으로 놓이게 되는 조건과 그로 인한 두려움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는 전깃불 에피소드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간략히 말하면, 이 작품에서의 전깃불 에피소드는 6.25전쟁 중에 박준과 그의 어머니

---

<sup>5</sup>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대한 기왕의 논의는 주로 소설 속에서 신화와 설화를 사용한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거나, 이 작품이 목표로 한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해원의 작업 및 공동체에 대한 회구 의식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연남경, 「신화의 현재적 의미 - 최인훈과 이청준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vol.44., 2011; 이성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제주, 제주민 의식-「이어도」와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vol.53., 2015; 이소연,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신화적 리얼리즘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vol.74., 2016. 등.

가 겪은 일이다. 전쟁 중, 특히 전선이 자주 바뀌던 시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국군과 인민군 혹은 빨치산이 번갈아 민가를 들러 장정들을 모두 살해하거나 아니면 부녀자들에게 부역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이유없이 그들을 학살했다. 어느 날 밤 박준과 어머니만 자고 있는 방에 누군가가 환한 전깃불을 들고 들어와 박준과 어머니에게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sup>6</sup>고 물으며 거듭 답을 요구한다. 전깃불 뒤에 누가 서 있는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의 여부가 걸린 질문에 대해 연신 대답을 강요당한 기억은 박준의 머리에 깊은 정신적인 외상(trauma)으로 남는다. 이는 성인이 된 박준의 자기 인식 및 세계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박준의 정신적 외상에서 냉전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폭력이라는 내용적 측면은 소거되고, 전깃불을 비추는 주체-대상이라는 형식만이 남아, 박준이 작가로서의 자신과 외부와의 관계를 정의하고 인식하는데 중요한 매개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한데 요즘 나는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가장 성실한 작가의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말이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sup>7</sup>

이 대목에서 전깃불 에피소드의 구도, 즉 무력한 개인-익명의 권력 주체 혹은 집단의 폭력이라는 구도는 냉전 이데올로기라는 그 구체적 내용을 사상한 채로, 글쓰기의 존재론 또는 작가와 세계의 관계를 인식하는 추상적인 틀로 매끄럽게 전환된다. 이 구도 속

---

<sup>6</sup> 이청준, 「소문의 벽」(1971).

<sup>7</sup> 위의 소설.

에서 작가인 박준은 전깃불 에피소드에서 일방적으로 대답을 강요받고 있는 개인이며, 그 외부에서 작가를 평가하고 검열하는 독자, 여론 또는 검열 기관 등은 익명의 권력체가 된다. 그러나 이 구도는 물리적인 권력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 박준이 주조한 인식론에 가깝다. 박준에게 진술을 종용하며 일종의 폭력을 휘두르는 인물로 정신병원의 의사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작품 속에서 박준은 이미 외부의 폭력을 상당부분 내면화한 후, 자신의 폐쇄된 내면 속에서 절대적인 권력에 맞서는 무력한 개인의 고투를 거듭하는 듯 보이며, 작품의 초점 역시 여기에 있다.

이 지점에서 196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 대한 김영찬의 논의의 일부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김영찬에 따르면, 이청준의 소설에서 전깃불 체험은 본래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이 낳은 폭력적인 상황의 산물”이며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외상이었다. 그러나 이는 글쓰기 과정에서 1960년대의 시공간으로 옮겨지면서 “글쓰기 주체가 직면한 근경의 근원을 무대화하는 자기 반영적 형식”으로 치환된다.<sup>8</sup> 김영찬이 “한국적 근대의 파괴성을 요약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형식”<sup>9</sup>이라고 의미 부여하기도 했던 이청준의 전깃불 체험에서 나타나는 고립된 개인-익명의 권력 구도는 해방 이후 한반도를 지배해온 냉전 이데올로기에 기인한 폭력의 핵심을 형식적으로 응축시킨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신적 외상의 내용에 대한 논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변환·변주되고 있는 양상은<sup>10</sup> 주체가 자신의 외상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그 외상의 내용을 대면하지 못하고 억압한 것임을 보여주는 징후로 의심해볼 수 있다. 1948년 제주4.3사건과 여순 사건, 그리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남한은 반공국가로서의 정

---

<sup>8</sup> 김영찬, 『근대의 불안과 모더니즘』, 소명출판, 2006. 104-105쪽.

<sup>9</sup> 위의 책, 98쪽.

<sup>10</sup> 이청준은 다양한 글들에서 전깃불 모티브를 변주하며 재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문의 벽」(1971), 「꺼어지지 않는 자서전」(1972), 「가위 및 그림의 음화와 양화 1」(1984), 「전깃불 앞의 傍白 - 가위 및 그림의 음화와 양화 2」(1988) 등이 있다.

체성을 확립해나갔고,<sup>11</sup> 이후 군부독재정권 하에서 반공주의 질서는 더욱 공고해졌다. 그 질서 하에서 전깃불은 ‘폭력’이라 명명하기 어려웠고, 정신적 외상은 객관화되어 극복되기보다 억압되고 내면화되기가 더욱 용이했을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전깃불 모티브와 관련된 이청준의 소설 속 인물들은 전깃불로 대표되는 외부의 폭력을 이미 주어진 절대적인 조건으로 인식하고 내면화하여, 다시 그것에 대한 개인의 고투를 상연·향유함으로써 주체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점에서 폭력의 원인과 그 메커니즘을 탐구함으로써 논지가 외부로 확장되기보다, 고립된 개인의 위치를 거듭 확인하는 데에 천착하며 내부로 침잠하는 이청준의 세계인식 및 글쓰기 방식은 냉전이 주조한 미학의 한 방식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신화를 삼킨 섬』의 제주도 및 제주4.3사건의 재현은 이러한 이청준 특유의 미학적 방식이 ‘매끄럽게’ 적용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고립된 개인 대신 고립된 집단으로서의 제주도 및 제주4.3사건이 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외부, 즉 희생자 수습 및 기억사업을 두고 다투는 좌우익 측과 국가적인 무속 사업을 진행하는 크고 작은 국가 기관들이 행위자로 기능하며 권력을 행사한다(그러나 초점이 제주도민인 만큼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다).

한편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1980년대인 점 역시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작품의 결말에서, 육지에서 온 무당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다시 육지로 돌아가는데, 이때 육지로 돌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상기시키는 또 다른 폭력의 역사를 예감하고 몸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육지 무당들은 섬을 빠져 나가는 한편, 제주도민들은 떠나고 싶어도 마치 ‘운명’처럼 제주에 매여 떠날 수 없다. 무당으로의 길과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모두 벗어나고 싶어했던 금옥이 결국 신병을 이기지

---

<sup>11</sup>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참고.

못하고 무당이 되면서 탈출욕구를 억압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마지막 장면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작가는 폭력을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이를 감내하는 제주도민들의 ‘인내’와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강조하며 신성화한다. 무력하고 고립된 제주도는 이 폭력의 순환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그것으로부터 이탈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 보이며, 작품에서도 저항이나 이탈의 계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때 4.3사건이라는 폭력의 역사는 작품 속에서 과거에 제주도가 겪었던 삼별초의 제주도 내도, 몽고군의 침탈, 일제 강점기 및 6.25 전란기의 군 훈련소 운영기 등의 역사와 동일한 층위에 놓여, 제주도민들을 고립시키고 휩박시켜 온 무수한 폭력 중 하나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이 작품이 궁극적으로 그리지 않았던/못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은 해방 이후 끊임없이 ‘당신은 누구인가(누구의 편인가)’라는 폭력적인 물음들을 무수히 대면해야 했던 제주도와 그곳에서 삶을 영위해온 사람들의 구체적인 정치사회적 조건을 인위적으로 소거해버린다. 그 질문은 전깃불 체험을 반복적으로 재연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접했을 것이지만, 제주도와 제주4.3사건 재현에서 이 질문은 끝내 가시화되지 않는다. 특히 제주도 사람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섬과 육지, 내부와 외지의 구분은 단순히 지정학적 구분으로 볼 수 없다.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낙인찍고, 그곳 사람들을 ‘빨갱이’로 호명해온 시간, 그 심문(審問)의 정치의 축적에 의한 정치사회적 구획이다. 좌우익에 위치한 사람들이 다소 손쉽게 ‘무고한 양민’의 대척점에 위치하는 권력 집단으로 형상화된 점 역시 단순한 재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을 고려해볼 때 1980년대 초라면 좌익 측 희생자를 기리는 측은 제주4.3사건이 ‘공산폭동’이라는 오명 하에 아직 제대로 세력화하지 못했을 시점이다. 제주4.3사건을 무결하고 무력한 피해자들과 국가폭력 간의 갈등으로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은 그 사건을 발발하게 한 국가형성 초기의 제 모순과 격렬한 이데올로기 갈등이 지배하고 있었던 ‘해

방공간'의 기억을 은폐하는 것이 된다. 이 은폐를 딛고 세워진 해원(解冤)이라는 목표는 무엇, 그리고 누구를 위한 작업일 수 있는가.<sup>12</sup>

전깃불 체험이 해방 직후~1950년대 남한의 집단적 외상이라면, 그 익명의 전깃불이 행사하는 폭력을 주조한 냉전 이데올로기에 대해 여전히 말하지 않는/못하는 것 역시 이청준 개인의 외상이기보다 집단적인 외상일 터이다. 이를 보여주듯, 이러한 이청준의 희생자 및 제주도 재현은 현재 4.3사건에 대한 주류적인 해석인 '국가폭력론' 혹은 '소극적 항쟁론'과 접점을 갖는 듯하다. 제주4.3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및 평가가 분기하고 경합하는 과정을 논구한 김민환의 분류에 따르면, 제주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크게 1) 폭동론 2) 국가폭력론 3) 항쟁론으로 나눌 수 있다.<sup>13</sup> '폭동론'은 제주4.3사건이 무장공비에 의해 발발한 사건이라는 해석으로, 반공주의를 정권 유지의 강력한 도구로 삼았던 이승만 정권 및 군부독재 정권 하에서 오랫동안 견지되어 온 해석이다. '항쟁론'은 다시 북한 지향적 항쟁론(남로당 중앙의 지령을 받고 제주도의 좌익세력이 4.3사건을 일으켰다는 해석), 적극적 항쟁론(반외세 반분단 항쟁론)과 소극적 항쟁론(무장대와 분리된 제주민중들의 자위적 항쟁론), 이렇게 세 가지 해석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국가폭력론이 있다. 김민환에 따르면 2000년에 제정된 제주4.3특별법 및 이를 토대로 조성된 제주4.3평화공원은 위의 소극적 항쟁론과 국가폭력론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다.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배보상 문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

<sup>12</sup> 이청준은 이 작품의 의도를 「소설 노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4.3사건 이후 비극의 연인 소재와 가해자·피해자 간의 위상 및 역사적 책임 문제로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이 내연해 온 제주민들의 상처를 한 마당 씻김굿판으로 얼마쯤이나 아물려 보고자 한 이야기가 후자 쪽이니까. 그리고 두 작품(『흰옷』과 『신화를 삼킨 섬』을 의미-인용자주)에 등장한 위령제와 씻김굿판은 다 같이 생자와 사자 간뿐만 아니라, 생자와 생자들 간의 현세적 삶의 화해와 구원을 지향한 민족 공동의 신앙 양식이라는 점에서 작자로서는 특별한 의미를 삼고 싶었던 작품들이니 까.”

<sup>13</sup> 이하 제주4.3사건의 해석 및 평가에 대한 논의와 그 분류는 김민환의 다음 논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김민환, 「전장이 된 제주4.3평화공원: 폭동론의 '아른거림(absent presence)'과 분열된 연대」, 『경제와 사회』 no.102., 2014.

문제로 오랫동안 대립해왔던 제주경우회와 제주희생자유족회가 각자의 입장을 좁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지점이 국가폭력론과 소극적 항쟁론이라고 볼 수 있다.

두 해석 속에서 4.3사건 때 사망한 희생자 및 유족은 이청준의 소설에서 형상화된 것처럼, 권력 집단 간에 이루어진 이념 대립과 무관한 무고한 양민들로 이해된다. 4.3사건이 폭압적인 국가폭력과 양민 간의 수직적인 갈등, 일방적인 학살론이 주류의 해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이념이나 대의를 위해 무장행동을 했던 무장대, 빨치산의 형상이다. 실제로 4.3위원회에서 피해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매우 논란이 많았고, 결국은 일련의 선별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배제된 집단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무장대 측 인사들이었고, 그들의 위패는 위패봉안소에서 철거된다. 한편 4.3사건에서 무장대와 같이 물리적인 위력을 행사했던 토벌대는 ‘국가유공자’ 이자 희생자의 범주에 무리없이 안착한다.<sup>14</sup> 김민환은 이러한 4.3사건 희생자의 범주화 과정을 논의하며 “위패봉안소에 모셔진 위패”가 “현재의 대한민국이 수용할 수 있는 ‘국민’의 경계를 상징하게 되었다”고 말한다.<sup>15</sup> 그 ‘국민’의 경계는 가해의 여부가 아니라 여전히 한반도 이남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냉전 이데올로기가 허용하는 인식의 경계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sup>16</sup>

그리하여 이 논의는 서론에서 제기한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우리는 냉전 시기 이념 대립의 역사와 적대감을 ‘납은’ 것으로 치부할 수 있을 만큼 그것들을 충분히 해체했는가. 이청준의 제주4.3에 대한 재현 및 전깃불 모티프의 전유 방식(추상화)의 한계,

---

<sup>14</sup> 앞의 글, 90-96쪽.

<sup>15</sup> 앞의 글, 97쪽.

<sup>16</sup> 당연하게도 냉전 이데올로기로 인한 인식·상상·재현의 가능성의 범위가 제한되는 일은 현재 한반도의 물리적인 분단 상태와 무관하지 않지만 그것과 인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한반도의 남북한 정권이 냉전 이데올로기 갈등의 유지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서로 강화해왔던 심리전의 역사가 축적, 잔존하여 이 경계를 굳혀온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사회적 합의가 다다른 현 위치의 한계를 나란히 놓아봄으로써, 냉전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해체되고 있는 과정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나가며

영화 <레드헌트>(조성봉, 1996)가 화면에서 비춰주는 희생자의 형상들이 이념 대립과는 무관한 민간인뿐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작품의 내용은 제목의 문면 그대로의 의미에 상응하는, ‘빨갱이 사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품의 제목이 가리키는 바의 절반만을 달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1991년 이후 탈냉전기의 도래가 선언되었지만, 한반도에서 가장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했던 해방 직후의 시기, 그로 인한 냉전 속 열전, 즉 제주4.3사건을 비롯한 신의주학생사건(1945), 대구인민항쟁(1946), 여순사건(1948.10) 등은 미디어에서 쉽게 재현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한반도는 초기의 반공영화 <피아골>(이강천, 1955)이 검열 과정에서 겪었던 공산주의자/빨치산 재현의 딜레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른바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던 불온한 적의 형상은 어떻게 재현될 수 있는가? 그 형상은 재현됨으로써 ‘불온하지 않음’의 경계를 명확히 해주어야 했지만, 그 형상에 행위성과 서사를 부여하여 가시화하는 작업 자체는 자주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제주4.3사건 역시 가시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폭동’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가시화된 부분을 더욱 어둡게 만들어야 했다.

1989년 해금 이후, 빨치산이나 공산주의자의 형상이 재현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여전히 이 ‘불온한’ 형상들에 관한 서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대중의 인식 속에서는

협소한 공간만을 차지하고 있다.<sup>17</sup>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대항했던 이들, 그리고 무장대를 상기시키는 항쟁론의 범주가 주류적인 해석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범주에 무장대 출신의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만이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 등이 이를 방증한다. 냉전의 진정한 해체는 이 시기의 역사를 구성했던 다양한 형상들이 고르게 가시화될 수 있을 때, 그 형상들이 다양한 서사를 부여받을 때에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1, 2, 열림원, 2003.

이청준, 「소문의 벽」, 1971.

그 외 다른 이청준의 소설 및 작가노트

### 2. 논문 및 연구서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김민환, 「전장이 된 제주4.3평화공원: 폭동론의 ‘아른거림(absent presence)’ 과 분열된 연대」, 『경제와 사회』 no.102., 2014.

김영찬, 『근대의 불안과 모더니즘』, 소명출판, 2006.

이하나, 「1970~1980년대 ‘민족문화’ 개념의 분화와 쟁투」, 『개념과 소통』 vol.18.,

---

<sup>17</sup> 이혜령은 최근 다양한 매체에서 과잉재현되고 있는 친일파와 달리, “그 자체로 폭력에 연루됨으로써 근대국가에 의한 폭력의 정당화와 자연화를 심문하는 역사적 형상”으로, 남한의 대중매체에서 과소재현되고 있는 빨치산의 형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혜령, 「빨치산과 친일파-어떤 역사 형상의 종언과 미래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vol.100., 2017.

2016.

이혜령, 「빨치산과 친일파—어떤 역사 형상의 종언과 미래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vol.100.,

2017.

허영선 외, 『그들 속의 4.3: 死·삶과 기억』, 선인, 2009.